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05다66534 건물등철거등
2005다66541(참가) 건물철거등
원 고 합병된 주식회사 엔씨브이산업의 소송수계인
태려건설 주식회사 (변경전 상호 : 씨엔이건설 주식회사)

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

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, 피상고인

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외 1인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

피고, 상고인 겸 피상고인

피고 1 외 1인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5인

독립당사자참가인, 상고인

재단법인 지덕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

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4나25535, 25542(참가) 판결
판 결 선 고 2006. 3. 23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,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
참가인이 각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

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
처분은 결국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
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(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다2323 판결 참조), 그 후 재단법인
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
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진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진한 때로부터 유효
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.

같은 취지에서 원심이,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비록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
토지에 관한 2001. 7. 28.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그
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것

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며, 나아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었고,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로부터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및 그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.

2.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

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소유권이 여전히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고,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바,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들의 소유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므로, 결국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자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_____

주 심 대법관 강신욱 _____

대법관 고헌철 _____

대법관 김지형 _____